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복음 말씀을 접하니 요새 우리 스스로와 가까운 이들에게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떠오릅니다. 가슴 아프고 무기력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 누구에게나 힘들고 아픈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것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힘을 얻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녹)연중 제29주일]:
10월 16일 복음 말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8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2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5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6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7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0월 둘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오클랜드 교구 제 20회 차우타우과 행사

오클랜드 교구내 소수민족 잔치인 차우타우과 연중행사가 지난 10/8(토) 오클랜드 로렌스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셋팅과 음식 운반, 그리고 뒷정리까지 도와주신 문지영, 홍상미, 김정호, 전진영, 그리고 뜨락님들 (김다솜, 안해준, 홍용표, 이승재) 감사합니다. 특히 배너와 메뉴 작성을 해주신 문지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드린 미사에 독서, 응송, 성가 등이 각 나라 언어로 돌아가며 진행 되었으며 미사 후 민속 공연 및 음식을 맛 보며 인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진제공 천종욱 다니엘 홍보 부장님: http://oakcc.org/node/2666#.V_1OFb1rifU)

김 세실리아 자매님 연도 봉사

지난 10/6일 한국에서 선종하신 주임 최 신부님의 어머니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의 연도가 지난 주일 (10/9) 미사후에 있었습니다.

준비/셋팅과 설거지, 뒷정리를 도운 하모니, 뜨락회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기도

- 위독하셨던 **이영재 루카 형제의 아버지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께서 10/10일 선종** 하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루카 형제와 유가족, 그리고 고인께서 하느님의 곁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드립니다.

- 투병중에 **10/6일 한국에서 선종하신 주임 신부님의 어머니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신부님, 가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주님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으시길, 그리고 신부님과 가족들께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 최근 여러 힘든 소식 및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속에 무기력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되는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함께 기도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회장단에게 알려 주세요.

연도 소식 - 10/16 주일

한국에서 방문 하셨다가 10/10일 워싱턴 DC에서 안타깝게 선종하신 **이영재 루카 형제의 아버지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위한 연도가 주일날 (10/16일) 하모니 회합중**에 있겠습니다. 고인께서 하느님 곁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연도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부회장 사퇴의사

하모니 부회장 박보라 율리아나 자매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퇴를 표했으며 회장단은 이를 존중하고 받아 들이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율리아나 자매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즐겁게 하모니 활동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매주 금요일로 예정된 청년 마르코복음 이번주 (10/14) 모임은 신부님의 부제로 취소합니다. 신부님께서 한국에서 돌아 오시는 대로 일정을 확인해 다음 모임에대해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교리/신앙 생활에 대해 제출된 질문을 주일미사 공지 시간에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질문은 성당 입구에 비치된 종이에 써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최근 선종하신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기도속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6226%20Camden%20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Oakland,%20California%20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